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세대통합의 방향과 가능성

박 경 은(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기획팀장)

I. 문제제기

2012년 전국가족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김승권 외, 2012)에서는 15~64세 기혼 남녀들은 만혼이나 비혼의 원인으로 제시된 10가지 문항¹⁾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는 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에 찬성한 사람이 모두 82.4%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 유지를 위한 충분한 수입이 되지 않아서’라는 진술에는 84%가 찬성하였으며, ‘집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라는 문항에는 모두 77%가 동의하는 하여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세 가지 문항이 모두 경제문제와 높은 결혼비용과 관련되어 있었다. 한편 현재의 20~30대는 ‘88만원 세대’와 ‘삼포세대’로 불리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 세대 내와 세대 간 경쟁과 높은 삶의 비용에 압도되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있는 세대인데, 이러한 포기가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해당 실태 조사가 잘 나타내주고 있다.

세대를 출생 코호트²⁾로서 “정치사회적 변동을 동시에 경험한 동년배 집단”으로 정의(김혜영, 2005)한다면 최근 20~30대를 지칭하는 ‘88만원 세대’와 ‘삼포세대’라는 용어는 이들 세대가 동시에 경험한 변동이 혹은 그 변동의 결과가 ‘포기’라는 점에서 세대의 명명 자체 내에서 세대 간 갈등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2030세대도 경제상태가 비교적 안정될 30대 중 후반 이후의 늦은 결혼을 통해서, 세대 간의 자원이전을 통해, 결혼과 출산의 사회인구학적 발달의 전이 순서를 변경함을 통해서(출산 후 결혼이나, 결혼 없는 출산) 자신들의 가족생활주기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주의의 심화, 가족의 동거동재의 약화, 세대전승의 단절 등으로 인해 세대 간의 통합보다는 갈등이 심화될 개연성이 높은 가운데 가족들의 기능을 보완하고 문제를 예방하여 가정생활을 지원해왔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현재의 2030세대가 일자리를 위해 학업이나 직장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1인 가구

-
- 1) 10가지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 ②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③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④ 시댁, 처가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 ⑤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⑥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⑦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⑧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⑨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⑩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
 - 2) 세대는 ① 조부모-부모-자녀 세대와 같이 친족계보의 의미로, ②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는 출생 코호트, ③ 청소년 세대, 대학생 세대와 같이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 ④ 전쟁 전후세대와 같이 특정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 등으로 구분(Kertzer, 1983)되어 사용된다.

도3) 증가하고 있다. 현재 1인 가구가 가족정책에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는 하나,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 입장에서는 ‘부모+자녀 가구’⁴⁾에 속한 주 고객의 감소와 2030세대에게는 가족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로부터 소외될 위기를 맞게 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가족의 형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2030세대가 그 이전의 세대와 통합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안정과 통합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대통합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현황 검토를 통해 그 간의 세대 문제의 접근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2030년의 미래가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세대통합을 위한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2030년에는 현재의 2030세대가 중년기가 되어 가족의 친족관계나 생애주기에서 중심이 되는 세대가 된다는 점과 미래가족에는 단순히 2030세대만이 아니라 현재의 부모 세대에게 미칠 영향도 같이 고려된다는 면에서, 미래가족의 검토는 세대 통합의 논의를 위해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세대통합 방향을 근거로 마지막으로 향후 미래가족의 생활전망에 맞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세대통합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세대통합은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여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족관계 내에서 세대 차이에 대한 연구는 가정학의 오랜 연구주제였지만, 세대통합 논의는 주로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면서 노인세대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혹은 가족 내에서 통합시킬 것인가로 집중되었다. 최근까지 100세 시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노년세대가 일과 교육, 여가, 가족관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통합에 집중되어 있다⁵⁾.

이러한 노인세대의 통합 논의는 ‘세대공동체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데, 아동과 노인의 합동교육, 노인을 봉사자로 한 교육, 노인을 강사로 한 교육 등 교육적 활동을 통해 한 세대가 아닌 둘 이상의 세대나 연령집단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한정란, 2002).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지역의 세대 실정에 맞게 세대공동체 교육방법을 활용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표 1> 참조).

3) 2010년 1인 가구의 혼인상태는 미혼 184만 3천 가구(44.5%), 배우자있음 53만 4천 가구(12.9%), 사별 120만 8천 가구(29.2%), 이혼 55만 6천 가구(13.4%)로 나타남(통계청, 2012).

4) 2012년 전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용자들의 가족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부모+자녀’ 가구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3)

5) 2002년 한국청소년학회와 한국노년학회가 세대통합의 전망과 과제라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 것 등이 좋은 예이다.

<표 1>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램(2012)

| 센터 | 영역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내용 | 참여인원 (명) |
|------------------|---------------|--|--|-------------|
| 대구남구건강가정 지원센터 | 다양한 가족 서비스 | 조손세대 가정기능강화프로그램 | 노인, 손자녀 세대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손자녀 양육, 노인심리관련 상담 | 151 |
| 남동구건강가정 지원센터 | 가족친화문화 조성 | 사할린어르신 및 3,4세대 자녀 문화프로그램 | 사할린 여성 및 지역주민 문화공연 | 42 |
| 보령시건강가정 지원센터 | 가족돌봄지원 서비스 | -세대공감프로그램-검은 머리와파뿌리의행복찾기 | 조손가족 조부모와 손자녀를 대상으로 가족교육, 상담, 문화체험 등 다양한 통합프로그램 | 91 |
| 진주시건강가정 지원센터 | 가족친화문화 조성 | 1,3세대통합프로그램 | 세대 및 문화 가치관 교육, 1-3세대 도전 공감벨!, 공동작업(티셔츠만들기) | 105 |
| 산청군건강가정 지원센터 | 가족친화문화 조성 | 1·3세대 통합프로그램 - 통통 1·3세대 | 세대이해하기 교육, 세대이해 문제 출제, 친목도모프로그램, 팀게임, 공동작업(티셔츠만들기) | 104 |
| 의령군건강가정 지원센터 | 가족교육 | 1.3세대 통합프로그램 -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하는 문화공감시대' |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레크레이션 | 78 |

*1, 3세대 통합으로만 검색하여, 실제 다른 프로그램에 세대통합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결과임.
출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자료(2012).

세대 통합의 방법론과 더불어 가족 내의 세대통합에 대한 논의에는 친족계보나 생애주기적 인 세대의 개념으로 주로 세대갈등이 일어나는 가족 내 관계조합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조병은(2002)은 ‘가족 내 세대통합의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서 중년기자녀-노부모 관계, 중년기 부모-청년기 자녀관계, 노년기 조부모-손자녀 관계로 나누어 특성과 선행연구를 정리하면서 부모 자녀의 성공적인 분화와 그를 위한 경제적 독립성과 자립성을 세대 간의 부양부담과 갈등의 최소화를 세대 통합의 과제로 결론 맺은 바 있다. 심리적인 발달과 관련하여 가족 내 세대갈등과 통합의 연구에서도(남순현, 2004), 가족 내 세대를 ‘노년기부모-중년기 자녀관계’, ‘중년기 부모-청년기 자녀관계’, ‘노년기 조부모-청소년기 손자녀 관계’로 구분하여 각 세대가 가진 발달과업의 특성을 중심으로 갈등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각 세대의 상호 교환적 가치를 수용하고, 효에 대한 가치를 규범적이기 보다는 정신적 유대관계로 재조명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조병은(2002)과 남순현(2004)의 논문에서 제시한 가족 내 세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입은 주로 ‘노년기 조부모-손자녀’에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 이는 현실적으로 가장 프로그램 제공자가 접근하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이며, 이 때 <표 1>과 같이 세대공동체 교육이 많이 시행된다.

그러나 항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손자녀와 조부모가 함께 하는 세대공동체 형태로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2012년도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여주군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내가 쓰는 할머니 이야기’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세대통합의 좋은 사례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첫 회기에 오리엔테이션으로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을 한 후에는 5회기 동안 청소년 손자녀들만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 해 할머니 주제의 영상물을 제작 한 후 할머니를 초청하여 상영회를 진행하였다. 할머니가 손자녀와 같이 참석한 2회기는 같이 참석했다 하더라도 세대공동체 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는데, 손자녀만을 대상으로도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세대를 이해하고 가족관계 향상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세대통합의 좋은 예이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2).

한편, 베이비부머는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적인 특성을 가진 출생코호트 세대 분류이다. 이들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었던 최근 2~3년에 걸쳐 다양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도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었다(7).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에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다른 세대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베이비부머 세대 자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즉, 베이비부머를 위한 노년기 혹은 은퇴 준비교육이라던가, 가족관계, 재정관리 등으로 접근이 그 것이다.

2012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도 이에 발맞춰 은퇴를 앞둔 남성과 돌봄의 문제를 결합하여 “남성대상 가족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은퇴 후 남성들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가족관계 갈등과 소외를 막아보기 위해, 남성들이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족원들과 사회를 돌볼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교육이었다. 즉 해당 프로그램은 남성과 여성의 젠더 통합에 더 포커스를 맞춘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교육 후 이루어진 FGI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돌아보는 자리가 되어 좋았다’라는 응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세대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것은 아니었지만 세대를 이해하는 심도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세대 통합을 위해 다양하게 변주되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I. 미래가족연구를 통해서 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세대통합의 방향

최근 EU, OECD와 미국 등에서 미래 가족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있다. 장혜경·김은지·김영란·김소영·선보영·최진희(2012)는 가족미래 시

6) 노년기 조부모-손자녀 관계에 대한 세대통합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본사업은 아니지만 여성가족부의 가족역량가족사업 중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조손가족희망사다리서비스)로 제공된다. 해당사업을 위해서는 조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다양한 학습관리 및 생활지도, 생활가사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관계향상을 위한 정서지도, 교육문화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7)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예시(2012)

| 센터 | 영역 | 프로그램명 |
|--------------|------|--|
|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상담 | 100세 시대 베이비부머 부부 친밀감 향상 프로그램 '진달래(진실로 달콤한 내일을 위해)' |
| 이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상담 | 100세 시대 베이비부머 부부 친밀감 향상 부부 집단상담 |
| 청도군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교육 | 가족은퇴설계교육(중년기) 'Bravo' |

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해 인구, 정치, 노동, 과학기술을 가족변화에 주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 각각 영역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이에 따라 가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그런 다음 4차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핵심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런 다음, 이러한 핵심가설들에 대해 ‘가족변화 흐름 전망’을 기반으로 가설을 그룹핑하여 ‘불평등(inequality)’, ‘돌봄(care)’, ‘가족가치(family vale)’라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도출하여, 이 것을 시나리오 축을 사용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이러한 축들을 교차를 통해 2030년인 미래의 가족에 관한 다섯가지 시나리오⁸⁾를 도출하였다⁹⁾(<표 2> 참조). 그런 후 임시로 설정된 시나리오의 바람직성과 실현가능성 여부를 일반 국민의 인식과 맞는 지 확인하기 위해 만 20세 이상 5천명을 대상으로 가장 현실과 유사한 시나리오와 선호하는 시나리오, 가장 거부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표 2> 불평등, 가족돌봄부담, 가족가치를 축으로 한 5개의 미래가족 시나리오

| 번호 | 시나리오 명명 | 불평등 | 가족돌봄부담 | 개인중심가치 | 시나리오 설정 |
|--------|---------------------|--------------|--------|--------|----------------------------|
| 시나리오1 | 개인가치와 가족생활경합 시나리오 | 증가 (가족돌봄) | 증가 | 강화 |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1(Feasible1) |
| 시나리오2 | 가족생활의 양극화 시나리오 | 증가 (시장돌봄) | 감소 | 강화 |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2(Feasible2) |
| 시나리오 3 |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 | 감소 (국가돌봄) | 감소 | 강화 | 최선의 시나리오(Best) |
| 시나리오4 | 평등가족-불평등 가족 공존 시나리오 | 감소 (국가돌봄) | 감소 | 약화 | 차선의 시나리오 (2nd Best) |
| 시나리오5 | 가족부담 극대화 시나리오 | 증가 (가족돌봄) | 증가 | 약화 | 최악의 시나리오 (Worst) |

출처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최진희(2012).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II)」, p.143

그 결과, 전문가가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한 시나리오 1, 최선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와 일반인의 응답이 모두 일치하였다. 먼저 현실과 가장 가까운 시나리오부터 살펴보면, ‘시나리오 1’인 ‘개인가치와 가족생활 경합시나리오’(34.6%)이었고, 그 다음이 ‘시나리오 2’인 ‘가족생활 양극화 시나리오’(20.6%)로 나타났다. 즉 일반 국민들은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향후 가족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임금의 차이가 커지는 등 불평등성은 증가하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보육시설이나 노인돌봄시설이 불충분하여 가족이 직접 돌봄을 부담해야 하고, 미혼자의 경우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가족생활을 가장 현실적이라고 느낀다는 뜻이다. 시나리오의 2의 경우는 시나리오와 1과 같지만 가족이 수

8) 장혜경 외(2011)는 지금 추세가 지속될 경우를 전제한 알파예측(실현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불리한 환경을 가정하는 베타 예측(최악의 시나리오), 원하는 비전에 해당하는 델타예측(최선의 시나리오)을 통해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9)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연구보고서의 4.5장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행하는 돌봄서비스가 시장상품으로 경제적 형편에 따라 구매할 수 있어 가족돌봄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장혜경 외, 2012).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3’(48.4%)과 ‘시나리오 4’(32.0%)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3은 불평등과 돌봄부담은 감소되고 개인중심가치는 강화되는 것으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가 완화되거나, 임대아파트 보급으로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져 불평등이 감소하고, 국가가 무상이나 저렴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족생활 내에서도 개인의 생활이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나리오 4는 시나리오 3과 같으나 개인중심가치보다는 가족주의가 강한 것으로,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가족행사와 개인의 일이 겹칠 경우 가족행사를 우선할 것을 요구받는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는 가족 간의 불평등은 크지 않지만 가족 내의 성별 불평등은 더욱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장혜경 외, 2012).

한편 가장 거부하는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5’(41.9%)와 ‘시나리오 1’(29.5%)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5’는 불평등은 증가하고, 돌봄도 가족에게 맡겨져 있고, 가족중심가치가 강하여 모든 책임이 개별 가족에게 돌아가 계층 간, 성별 불평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는 시나리오이다(장혜경 외, 2012). 또한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었던 시나리오 1인 최악의 시나리오 중 두 번째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의미있다. 즉 높은 가족돌봄 부담 속에서 개인화라는 가치가 지속적으로 충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할 때 우리 국민들은 현재 가족의 모습으로 개인중심가치가 강하고, 가족이 수행하는 돌봄부담은 많고, 가족 간은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으로는 개인중심가치가 강화되면서, 가족돌봄부담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감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선호가 높았던 시나리오 3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낮고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선호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또한 미혼자의 선호비율이 더 높으며, 가족가치관에서 개인중심경향을 보일수록 선호도가 더 높았다(장혜경 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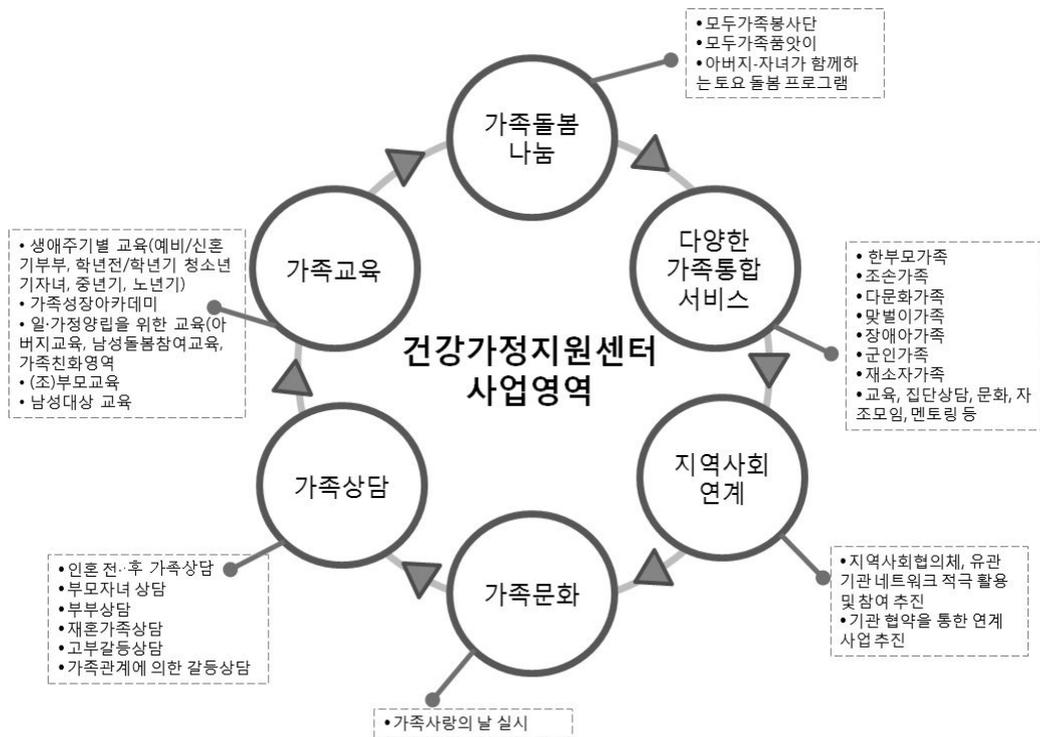
따라서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서비스 방향은 바로 미래가족이 처하게 될 다양한 삶의 변화와 어려움을 없애주면서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바로 ‘돌봄의 지속적인 지원’, ‘가족과 개인을 만족 시키는 질 높은 프로그램의 제공’, ‘다양한 가족의 통합’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수행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V. 미래가족과 세대통합 방향에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세대통합의 가능성

앞서 논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세대통합의 방향성에 맞추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의 가능성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1. 돌봄의 지속적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3년 현재 전국에 총 14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초기에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로 범주화되어 있던 사업구분은 현재 총 6개 영역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그림 1> 참조). 특히 2012년부터는 ‘가족돌봄나눔’에 영역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등 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림 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영역별 사업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초기부터 가족의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돌봄 DNA를 가지고 있다. 특히 현재 전국의 약 230개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공적보육 서비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증가로 생긴 가정 내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시적이고 긴급한 자녀돌봄의 틈새서비스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가정봉사원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2005)”와 시범사업을 통해 2009년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국가가 저비용으로 모든 계층에 돌봄서비스를 보편적으로 공급하고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돌봄의 국가개입 모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김혜영·박경은, 2012).

장혜경 외(2012)는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서 세대와 공동체의 지원과 결속이 가족 생활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래사회의 돌봄에 있어 조부모, 친구, 이웃, 지역공동체 등 사회적 네트워크가 가족에게 필수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돌봄사업 영역에서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가족품앗이¹⁰⁾는 바로 부모들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 하는 권리를 충족시키고 부모의 자발성과 공동체성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공간적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혹은 지역사회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육아휴게소, 육아정보 나눔터 등을 조성하도록 한바 있으며, 2010년부터는 공동육아나눔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5개 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국비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2011년에는 전국 23개소에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으로 확장되었고, 현재에는 전국 26개소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서 조부모의 개입과 이웃 간의 돌봄나눔의 시스템이 갖춰져 세대 간 및 세대 내 통합이 미약하게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고양시 사례의 경우 조손가정의 할머니가 직접 동화책읽기와 미술놀이 수업을 담당하며 중년기 엄마들과 통합되어 있었다(여성가족부, 2012). 남양주시 품앗이 사례에도 이러한 세대 통합을 발견할 수 있다.

“재주가 많으신 지*이 할머니께서는 쑥스러워 하시는 어머님들을 대신해 보육교사인 딸에게 배웠다고 하시며 집에서 가져오신 재료로 아이들에게 만들기를 똑딱해 주십니다. 또 찌꼬리 같은 목소리로 손유희를 하며 함께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십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엄마와 선생님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정도 함께 느끼고, 엄마들에게는 친정엄마의 빈 자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1, p. 236)”

2. 개인중심가치

향후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관계(시나리오 3)’에 대한 바람은 가족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다. 김혜영·김상돈·박선애(2012)는 문학텍스트에서의 가족의 모습과 사회조사연구의 가족가치를 분석하면서 한국의 가족이 집합으로서의 가족중심정보보다 개인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개인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결론 맺으면서, 미래의 가족은 (개인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매순간 불안하지만 다양한 선택을 통해 의미 있고 소통가능한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이 새롭게 요구되며 따라서 실질적인 가족문제의 진단과 치료, 상담 등에 관한 다양한 자조(self-help)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개인의 심리문제, 가족문제 진단, 다양한 기법을 통한 서비스 노출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보자들의 상담과 치료의 과정을 TV프로그램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김혜영 외),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개인과 개별 가정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자조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점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10)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녀돌봄,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모든 형태가 포함되며, 상호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내가 가지거나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고, 받거나 배우고 싶은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얻어, 지역사회와 이웃이 함께 서로 협력하는 것임”

3. 다양한 가족의 통합

장혜경 외(2012)는 불평등의 감소를 위한 고용 안정, 일자리간 임금격차 감소, 다양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한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격차가 감소가 실현되는 사회이며, 여성 및 가족정책의 차원에서는 빈곤에 취약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과제라는 정책적 제안을 한 바 있다. 여기에 근거한다면, 경제적 불평등과 가족돌봄에 있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미혼가족 등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매우 중요한 서비스 대상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그 동안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를 중심으로 (여성)한부모 가족과 조손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으며, 이와 별도로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사업인 가족역량강화사업이 전국 30여개¹¹⁾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경제 문제에 취약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한 불평등 해소의 정책은 수당이나 일자리 등 거시적인 차원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많은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부자 가정이 원가족과 친족관계에서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세대 통합 지원은 매우 필요하다.

2012년 미혼모부자지원사업 서비스 만족도 조사대상자의 현황분석 결과(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2b), 조사대상자 총 430명 중 20대가 41.1%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30대가 38.3%로 나타났다. 향후 2030세대의 처해있는 정치사회학적인 어려움으로 볼 때, 해당 세대에서 미혼모부자가정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재가 미혼모부자 가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의 거주유형이 부모님 집인 경우가 31.1%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마련한 집이 45.4%에 이어 두 번째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부모세대와의 단절을 통한 어려움과 동시에 부모 세대와의 동거로 인한 가족갈등의 문제와 가족돌봄과 관련된 가족갈등 등을 모두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최근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대 간 소통이나 갈등의 문제는 이러한 세대 문제가 나타나도록 영향을 미친 사회적인 힘들(social forces)을 파악하고 이것이 가족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할 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가족의 미래 시나리오와 이를 위한 정책제안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방향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래의 가족에게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돌봄나눔, 가족 교육 및 상담, 다양한 가족 지원 등의 서비스는 유의미할 것으로 추론된다. 이상을 정리하여 미래가족 시나리오의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도출된 세대 통합의 이슈와 제공될 수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서비스를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11) 2012년 현재 30여개소에서 수행중이며 이 중 1개소만 복지관이 위탁

<표 3> 미래가족의 시나리오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세대통합 서비스 방안

| 시나리오 명명 | 세대 통합 이슈 |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예시) |
|----------------------------|--|---|
| 개인가치와 가족생활경합 시나리오(시나리오1) | 노인돌봄과 개인중심가치 충돌, 소득간 격차 심화 | 돌봄서비스 제공 남성의 돌봄참여 |
| 가족생활의 양극화 시나리오(시나리오2) | 소득에 따라 돌봄부담 차이 발생, 불평등이 증가되고, 개인중심가치 충돌로 인해 만혼, 비혼 증가, 무자녀 가정 증가 | 돌봄서비스 혼례문화관련 가족문화 캠페인 부부중심 프로그램 강화 부모-성인자녀 간의 의사소통 교육 및 가족상담 |
|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시나리오 3) | 돌봄문제로 인한 세대충돌 감소, 세대 간 통합 가능성 증대 | 상담서비스 개별화된 가족문화 및 여가서비스 |
| 평등가족-불평등 가족 공존 시나리오(시나리오4) | 가족주의 강화로 인해 여성의 가사·돌봄역할수행에 대한 기대가 있어 성별 충돌 증대 | 남성의 돌봄참여 신혼기 가족의 분화 지원 |
| 가족부담 극대화 시나리오(시나리오5) | 가족부담 증가로 세대 간 충돌 증대 | 한부모 가족 지원(돌봄, 주거, 일자리, 가족관계) |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준비해야 할 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본사업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의 30개소에 실시되고 있는 사업을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편입시켜 확대시켜야 하며, 아울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설치 불균형은 미설치 지역의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가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 전혀 감소되지 않는다.

둘째, 상담프로그램 및 가족이해 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담의 질을 표준화하고 더 나아가 종사자의 자격관리와 보수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한 관련 프로그램 매뉴얼과 더불어 2030세대와 타 세대 간의 통합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방향이 이들의 연애-결혼-출산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인구학적 전이의 변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지원할 것인가에 결정된다고 볼 때 다양한 가족관계에 대한 수용과 이해에 대해 건강가정사의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개인화의 심화로 인해 가족원의 일이나 교육 등 자기계발을 위해 분거가족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기러기 가족 등을 위시한 1인 가구를 포함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승권 · 김유경 · 김혜련 · 박종서 · 손창균 · 최영준 · 김연우(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영(2005). 가족의식의 세대적 특성. 가족과 문화, 17(1), 115-146.
- 김혜영 · 김상돈 · 박선애(2012). 「가족관련 가치 및 의식의 변화와 가족의 미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 · 박경은(2012). 변화하는 가족, 진화하는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가족서비스 통합전달체계로서의 건강지원센터의 역할. 「2012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정책서비스 방향토론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남순현(2004). 가족 내 세대갈등과 통합.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0(2), 1-15.
- 여성가족부(2012). 우리 품앗이가 최고예요. 「2012년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례집」.
- 조병은(2002). 가족 내 세대통합의 현황과 과제. 「한국청소년학회 · 한국노년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청소년학회 · 한국노년학회.
- 장혜경 · 김은지 · 김영란 · 김소영 · 선보영 · 최진희(2012).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통계청(2012).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보도자료).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1). 우리품앗이가 최고예요. 「2011년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수기집」.
- _____ (2012a). 「2012 건강가정지원센터 우수 프로그램」.
- _____ (2012b). 「2012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 결과보고서」.
- _____ (2013). 「2012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한정란(2002). 세대간 통합을 위한 교육노년학적 논의 : 세대공동체 교육. 「한국청소년학회 · 한국노년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청소년학회 · 한국노년학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세대통합의 방향과 가능성

어 성 연(중앙대학교 교수)

최근 우리 사회에는 줄어드는 중산층의 두께만큼이나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나눔정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제도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카스트제도로 자리매김 하였고 빈곤층의 확대, 대-중소기업의 격차 심화 등의 계층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대선에서 부각된 세대간의 갈등양상 역시 우리의 해결해야만 하는 근원적인 문제로 부각되었고 “사회통합” 그리고 “세대간의 [사회]통합”은 사회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하는 시급한 아젠다가 된다.

EU와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국가의 설립과정에서 개인과 국가의 계약에 기초한 시민민주사회의 패러다임과 역사를 갖고 있다. 시민민주사회에서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사명이 된다. 즉, 실업, 빈곤, 돌봄, 등의 사안이 개인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보는 **시민권**(일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잠재성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 등) **보장**을 사회정책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다. 가족정책론의 저자인 Zimmerman은 사회통합의 핵심요소로 공평한 정치참여, 가족의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민감성의 향상, 관용 그리고 인정이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가족에 대한 가치(Family Value)가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한다.

IMF이후 우리사회의 시민권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재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정책서비스 전달기관으로서 건강가족지원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양 기관의 설립 취지, 현행 사업들 그리고 전문적 인적 인프라를 고려할 때 우리사회의 당면과제인 세대통합을 위한 노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우리사회의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향후 노년층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고 이들의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²), 사회(세대)통합,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 그리고 문화향유에 대한 요구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거시적인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미시적 차원에서의 개별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킨다.

고령사회에서의 가족 돌봄의 문제, 노인일자리 창출의 문제, 여가와 문화공동체적 참여, 가

1) 프랑스의 경우 노인정책의 대부분이 (도시계획, 교육, 경제,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세대]통합적 접근을 표방하고 있고 미국의 사례 역시 지역사회기반의 노인정책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 하고 있다.
2) Healthy Aging은 이전의 Successful Aging의 대체하는 개념으로 WHO에 의해 제안되었고,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관계적 건강), 그리고 경제적으로 건강하게 나이 먹음을 의미하는 새로운 노화의 패러다임이다.

족관계의 질적 향상에 대한 열망 등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對家族 서비스들이 이미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활동, 지역사회 연계활동,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 등의 사업들 통해 시도되어왔고 그 영역들(Scope)은 향후 더욱 더 다양해지고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베이비부머세대와 젊은 노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은빛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70세 이상 노년층의 사회적 공헌 그리고 근면성(Work Ethic)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또한 기존의 이야기 할머니, 학교지킴이를 담당하시는 조손가족의 할아버지들의 활동은 일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버지교실과 연계하여 세대 통합을 모색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노령층의 증가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과 그들의 가족의 증가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노인돌봄이 老-老 케어와 가족돌봄의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천적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노인과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교육, 상담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담당함으로써 기존의 정책의 부족한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노인돌봄에 관한 의사결정이 노년기의 의존성의 증가로 인하여 분거 성인자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따라서 노인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노인(가족)은 물론 분거 성인자녀를 대상으로도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노인돌봄에 있어서도 노인자신과 배우자는 물론, 동거 혹은 분거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상담 등의 활동 및 노인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통해 기존의 노인복지관이나 치매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에서 **미처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지만 노인과 가족의 삶에 질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제공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가족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실천적 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학계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는 어떠한 가치관을 지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발표자는 원고에서 세대통합을 위하여 불평등, 돌봄 그리고 가족가치를 주요 키워드로 도출하였는데, 이 세 가지 개념은 향후 가족관련 정책을 창출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기초적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가족의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학계와 현장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개인의 열망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자칫 탈가족화 혹은 가족가치의 약화로 오인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80년대 일부 미래학자들은 21세기가 되면 가족이라는 사회적 Institution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지만 현재 가족은 다양한 모습의 변형과 기능의 진화를 이루었을 뿐, 그 가치와 중요성은 과거와 비교해서 경중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가족역량강화 혹은 건강한 가족은 다양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회적 기본가치가 되었다. 미래의 가족 역시 그 모습과 기능은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 가치는 계속될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